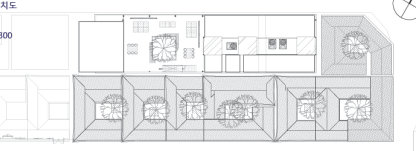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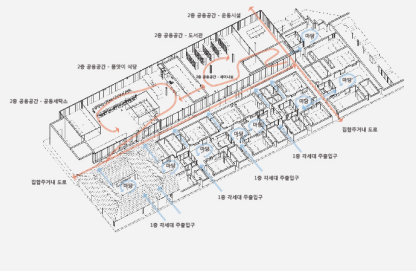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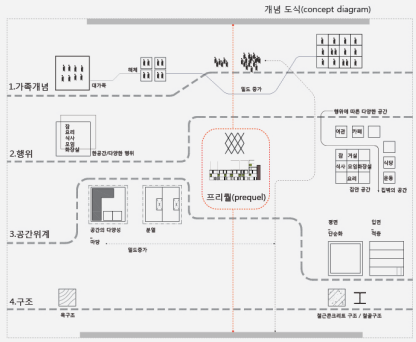


# 도시주거의 전편(Prequel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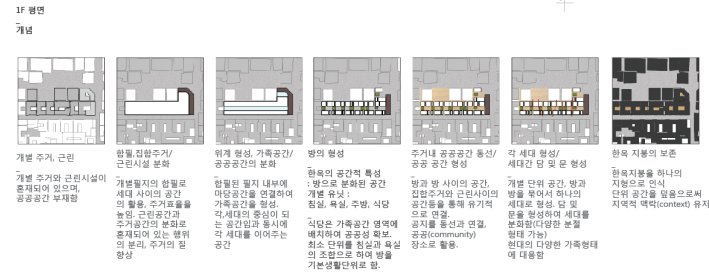
## 도시한옥과 현대주거의 사이

한옥 주택이전의 우리의 집, 아파트이전의 우리의 집  
 한옥 이후의 우리의 집, 아파트 이후의 집은 공간을 우리는 집이라 부른다.  
 한국에서 최성철은 한국의 환경에 맞게 한국인의 생활 방식을 만들어  
 나간 한옥의 집은 한옥이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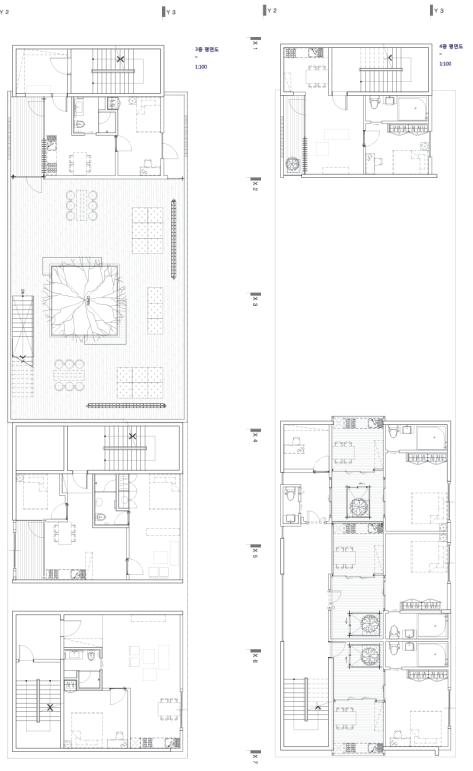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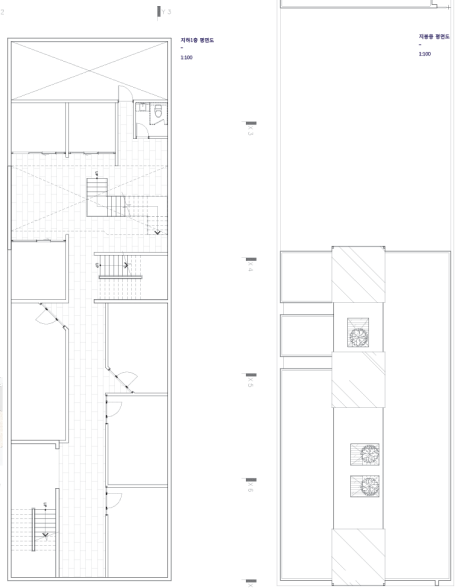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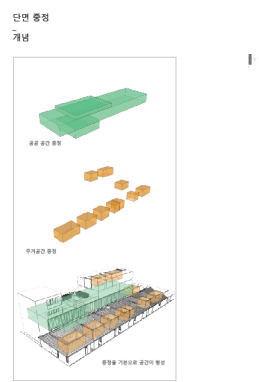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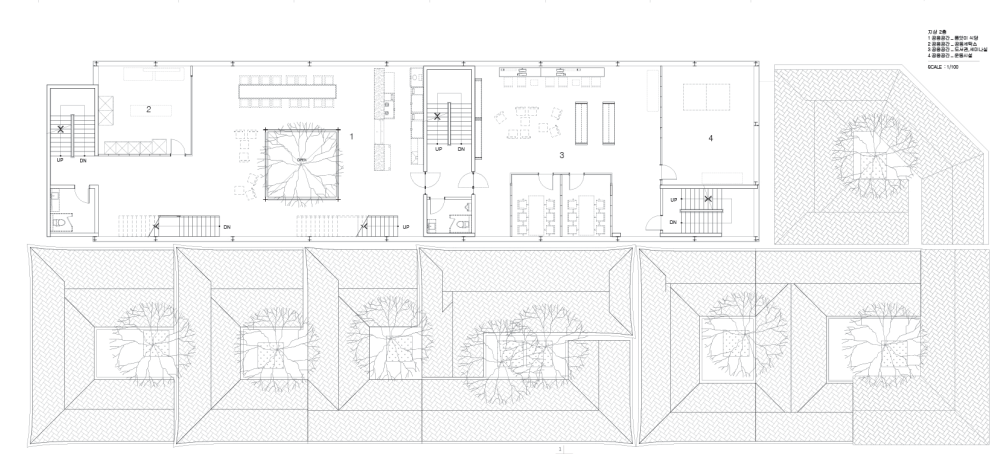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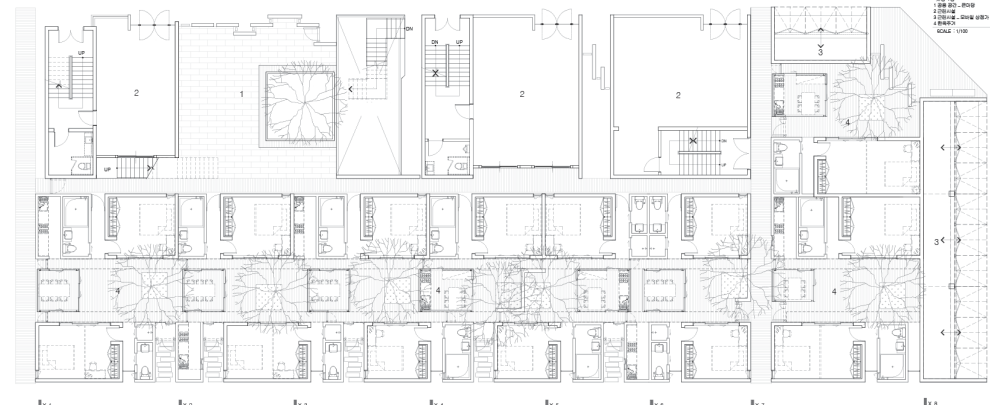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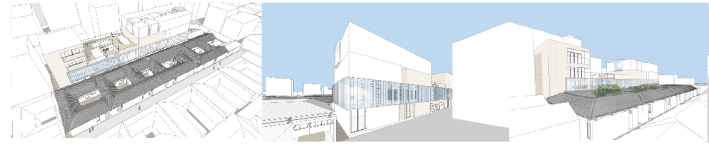
우리의 생활이 변화하면서 서구인들이 몰아왔지만, 우리는 한옥과 서구의  
 집의 절충점을 찾아왔지만, 우리는 그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게 되었다.  
 간극 사이에 'prequel' 한옥의 주거이전의 한옥이 간극을 메웠다. 나타난  
 혹은 나타난것이 아닌 집의 절충 상에서 보며, 그 절충에 따라다닌 아이들과  
 놀다와서 있고 있을 노년들을 생각해보면, 사랑할이, 우리, 내가, 거주하고  
 싶은 집이라, 공간이라, 장소라,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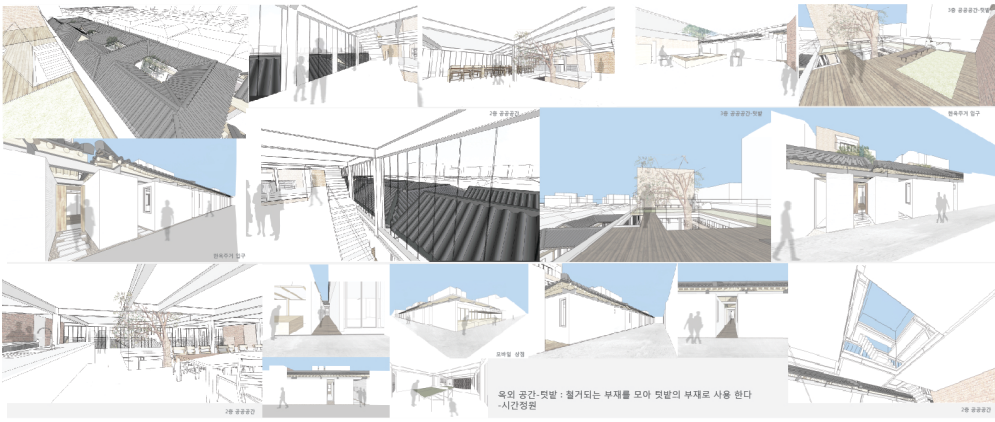


건축 개요  
 위치: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39-44, 56-60번지  
 [대지면적: 1176㎡]  
 건축용도: 주거 및 근린  
 구조: 한옥 특구조 + 철골구조, RC + 철골  
 층수: 지하 1층/지상 4층  
 건축면적: 882.98㎡  
 연면적: 지하 260.68㎡ / 지상 1607.93㎡ / 합계 1868.61㎡  
 공동주택 837.22㎡ / 근린생활시설 1030.39㎡ / 합계 1868.61㎡  
 건피율: 75.08%  
 용적률: 136.7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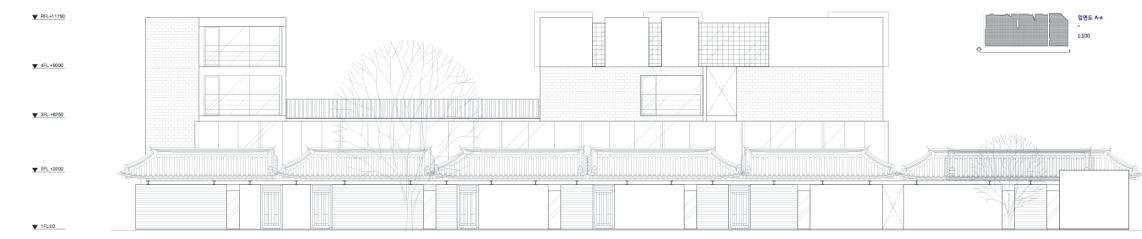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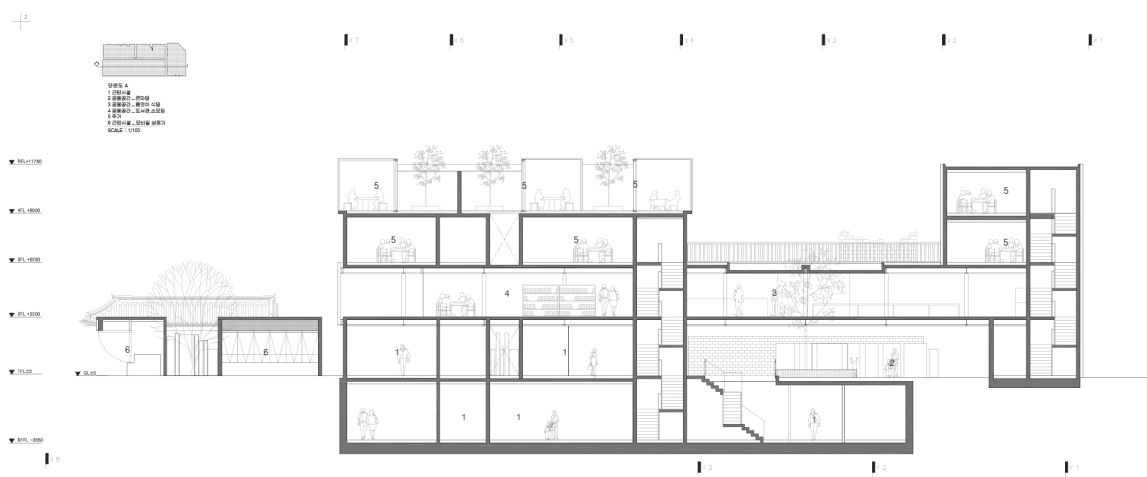


우리의 현대 도시주거의 역사는 너무나 짧고 특별했기 때문에, 외부에서 유입된 전통적인 주거형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절되어 있다. 결과적으로 전통 건축, 한옥은 삶의 일부가 아닌 유물화와 유폴타리를 지고 보존해야 할 무언가로 남아 있다. 현대 한옥은 전통 건축의 유폴타리를 지고 보존해야 할 무언가로 남아 있다. 현대 한옥은 전통 건축의 유폴타리를 지고 보존해야 할 무언가로 남아 있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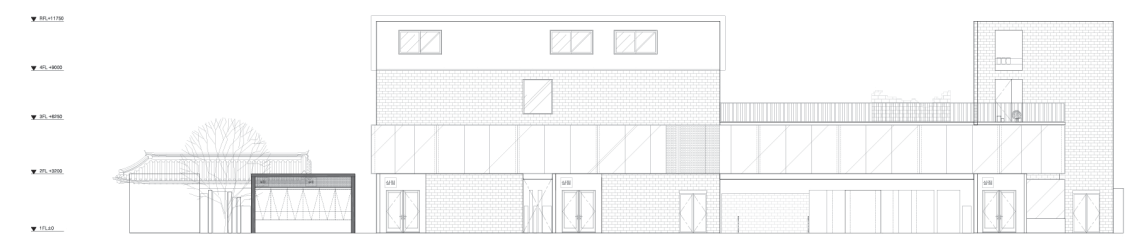
옥외 공간-땃밭: 칠기되는 부재를 모아 땃밭의 부재로 사용 한다  
-시간경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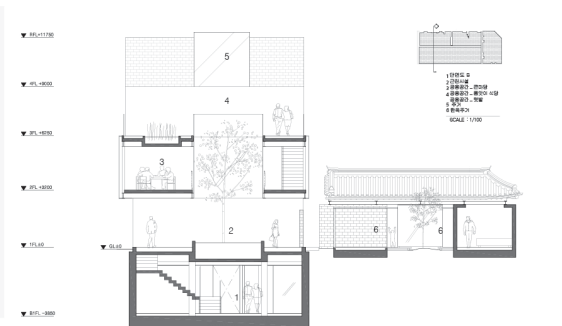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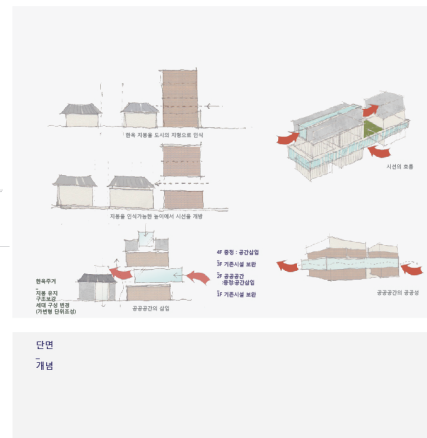
단면 A-A  
1:10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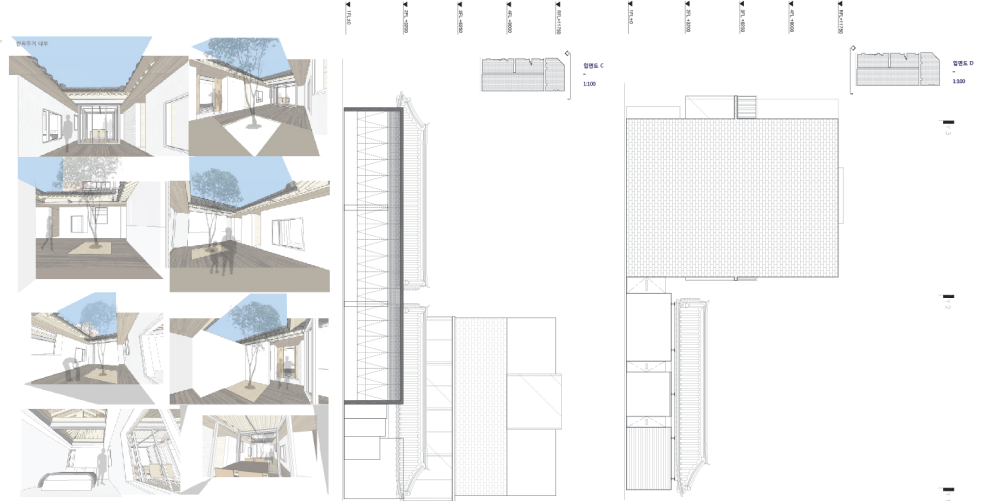
단면 A-A  
1:100



단면 B  
1:100



단면 B  
1:100



단면 C  
1:100

단면 D  
1:100